

한국 고등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탈행동 요인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박지현* · 김광선** · 김광희** · 남길우** ·
민경원** · 이삼순** · 정찬희** · 이현숙*** · 이홍직****

Associ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Level of Stress among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Ji-Hyun Park* · Kwang-Sun Kim** · Kwang-Hoi Kim** · Gil-Woo Nam** ·
Kyeong-Won Min** · Sam-Soon Lee** · Chan-Hee Jeong** · Hyun-Sook Lee*** · Hong-Jik Lee****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일탈행동요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t-검증과 F-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 고학년인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 문제음주를 한 경우에, 흡연을 한 경우의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factors of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level of stress. The 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was used for this study. It selected 35,668 cases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raw dataset and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test, F-test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Gender, living with parents, economic status, school type, grade, academic record, internet addiction, problem drinking, smok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level of stress. Findings may be used for coping with stress among the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키워드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Stre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linquent Behaviors
고등학생, 스트레스, 인구학적 특성, 일탈행동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jihyunpark99@naver.com)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hongjikle@kangnam.ac.kr)

접수일자 : 2013. 04. 25

심사(수정)일자 : 2013. 05. 20

게재확정일자 : 2013. 06. 21

1. 서론

청소년기는 다양하고도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1][2][3][4][5][6][7].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데 청소년들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한국의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안녕을 도모해야 할 시기이자, 이 시기의 성장은 향후 인생주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성장, 정체성 확립, 인간관계의 변화, 학업의 변화 등 여느 국가의 여느 발달단계에 비해 적지 않은 부담을 지닌 한국의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기존에 선행된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 특성, 인간관계 등의 요인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8][9][10][11]. 그러나, 정작 청소년의 다양한 일탈행동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탈행동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완화 및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의 개인, 가족, 학교 특성 및 일탈행동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2009년도 9월에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수집된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 중 고등학생의 자료를 추출하여 본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는 전국을 대상으로 추출한 표본에 대한 자료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 특성, 학교 특성, 그리고 이들의 일탈행

위 및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자료라 판단하게 되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약물사용,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등을 독립변수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2.2.1 인구학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업성적 등의 문항을 활용하여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부모와의 동거는 동거여부로, 가계경제수준은 상, 중, 하로 학교유형은 인문계와 전문계로, 학년은 1, 2, 3학년으로, 학업성적은 상, 중, 하로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1. 변수 소개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s

Measure	Factor	Variable	Classification
Independent measure	Gender		0 = Female
			1 = Ma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Living w/ parents		0 = No
			1 = Yes
			1 = Low
Economic status		2 = Middle	
		3 = High	
	Type of school		1 = Non-profession
		2 = Professional	
Grade		1 = 1st year	
		2 = 2rd year	
		3 = 3rd year	
Academic record		1 = Low	
		2 = Middle	
		3 = High	
Delinquent behaviors factor	Problem drinking		0 = No
			1 = Yes
	Smoking		0 = No

		1 = Yes
	Drug use	0 = No
		1 = Yes
	Internet addiction	0 = No
		1 = Yes
Dependent measure	Level of stress	Level of stress
		5 point scale

중독 요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SPSS WIN 17.0을 사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고, 각 독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t-검증과 F-검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2.2.2 일탈행동 요인

원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문제음주여부, 흡연여부, 약물사용, 인터넷 중독여부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일탈행동을 측정하였다. 우선 문제음주에 있어서는 최근 12개월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 홀로 음주, 절주 충고를 들은 경험, 음주 후 운전 또는 음주자와의 동승, 음주 후 기억 끊김, 음주 후 시비 여부 항목 중 2개이상 해당사항이 있으면 문제음주로 정의하였다.

흡연여부는 최근 30일내 흡연 경험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약물사용은 부탄가스나 본드 등의 약물을 습관적 또는 일부로 사용한 경험 여부를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원 자료에서는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여부를 6개요인(일상생활장애요인, 현실구분장애 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요인, 일탈행동, 내성)으로 파악하는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K 척도로 측정하였다 [1][5].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된 20문항으로 인터넷 중독여부를 측정한다[1]. 본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계수는 0.92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80점 중 45점 이상인 경우를 인터넷 중독으로 정의하였다.

2.2.4 스트레스

원 자료에서는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 중, 하의 세 단위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의 경우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 인터넷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변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51.68%)이 여학생(48.32%)보다 더 많았으며,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와 동거하는 경우(86.33%)가 그렇지 않은 경우(16.64%)보다 더 많았으며, 가계의 경제수준은 중(47.26%), 하(29.11%), 상(23.63%)의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유형에 있어서는 인문계(75.26%)가 전문계(24.74%)보다 더 많았으며, 학년은 2학년(33.99%), 1학년(33.70%), 3학년(32.31%) 순으로 많았으며, 학업성적은 하(37.93%), 상(32.94%), 중(29.12%) 순으로 많았다.

또한, 일탈행동요인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인 경우는 7.84% 정도였으며, 13.24%가 문제음주에 해당되었으며, 16.37%가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4%가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 특성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Factor	Variable	Category	Frequency(%)
Gender		Female	17,233(48.32)
		Male	18,435(51.68)
Living w/ parents		No	4,818(13.67)
		Yes	30,419(86.3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actor	Economic status	Low	10,384(29.11)
		Middle	16,855(47.26)
		High	8,429(23.63)
Type of school		Non-professional	26,845(75.26)
		Professional	8,823(24.74)
Grade		1st year	12,021(33.70)

	2nd year	12,124(33.99)	
	3rd year	11,523(32.31)	
Academic record	Low	13,530(37.93)	
	Middle	10,388(29.12)	
	High	11,750(32.94)	
	Internet addiction	No	32,873(92.16)
	Yes	2,795(7.84)	
Delinquent behaviors factor	Problem drinking	No	30,947(86.76)
		Yes	4,721(13.24)
	Smoking	No	29,759(83.43)
		Yes	5,909(16.57)
Drug use	No	35,049(98.26)	
	Yes	619(1.74)	

3.2 스트레스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본 조사 대상자 의 스트레스 수준은 5.00기준 3.46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 하는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스트레스 수준
Table 3. Level of stress

Variable	M ± SD
Level of stress	3.46 ± 0.93

3.3 독립변수에 따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

표 4는 고등학생의 인구학적 특성과 일탈행동요인 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t=30.69, p<.001),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t=1.99, p<.05),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F=285.14, p<.001), 전문계 학생의 경우에(t=-3.16, p<.01) 고학년일수록(F=122.94, p<.001), 학업성적이 낮을수록(F= 0.13, p<.001) 스트레스 수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Table 4. Level of stress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Factor	Variable	Category	M ± SD	t/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3.61 ± 0.89	30.69***
		Male	3.32 ± 0.93	

factor	Living w/ parents	No	3.49 ± 0.95	1.99*
		Yes	3.46 ± 0.92	
	Economic status	Low	3.64 ± 0.93	285.14***
		Middle	3.41 ± 0.89	
		High	3.35 ± 0.96	
	Type of school	Non-professional	3.45 ± 0.91	-3.16**
		Professional	3.49 ± 0.96	
	Grade	1st year	3.40 ± 0.93	122.94***
		2nd year	3.42 ± 0.92	
		3rd year	3.57 ± 0.93	
Academic record	Low	3.54 ± 0.93	90.13***	
	Middle	3.43 ± 0.90		
	High	3.40 ± 0.94		
Delinquent behaviors factor	Internet addiction	No	3.44 ± 0.92	-16.82***
		Yes	3.74 ± 0.92	
Delinquent behaviors factor	Problem drinking	No	3.43 ± 0.92	-17.18***
		Yes	3.68 ± 0.96	
	Smoking	No	3.44 ± 0.91	-8.29***
		Yes	3.55 ± 0.98	
Drug use	No	3.46 ± 0.92	-0.98	
	Yes	3.50 ± 1.17		

*p<.05, **p<.01, ***p<.001

한편,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인 경우에(t=-16.82, p<.001), 문제음주를 한 경우에(t=-17.18, p<.001), 흡연을 한 경우에 (t=-8.29, p<.001)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약물사용여부에 따른 스트레 스 수준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요인, 일탈행 동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여학생인 경우에, 양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전문계 학교 학생인 경우에, 고학년일수록,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 터넷 중독인 경우에, 문제음주를 한 경우에, 흡연을 한 경우에 스트레스 수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

등학생의 스트레스 예방 및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학생이 스트레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며, 이에 대한 학교 및 사회환경의 변화가 촉구되는 바라 하겠다. 즉 여학생에게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청되는 바라 하겠다. 아울러 여학생 자신들도 스스로 청소년기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가 더 스트레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있어서 여전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바라 하겠다. 즉, 부모와 학생간의 원만한 관계유지 또는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바라 하겠다. 셋째,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제적인 측면에 의한 차별이나 기회의 제한 등 애로사항을 완화하는 학교의 지원노력이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넷째, 전문계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에게도 인문계 학생과 함께 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경주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다섯째, 고학년일수록 더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담이 과중해 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학년에 따른 상담이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여섯째,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의 스트레스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학업외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개성과 역할을 찾고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둘째, 일탈행동 요인에 있어서는 약물을 제외한 인터넷의 과다사용, 문제 음주, 흡연 등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일탈행동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관계를 지님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올바른 활용, 음주와 흡연의 폐해 등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은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의 정신건강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리라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일탈행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인구학적 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교유형, 학년, 학업성적,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인터넷 중독, 문제음주, 흡연여부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예방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전달하였다.

본고는 2013년도 한국전자통신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참고 문헌

- [1] Park, S. & Lee, H.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 Youth",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pp. 291-299, 2013.
- [2] Yun, M., Jo, H. & Lee, H. "Effects of Internet Use and Alcohol Use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Vol. 25, No. 4, pp. 347-370, 2009.
- [3] Park, T. Jung, M. Jung, S. Park, H. Han, C. Hong, S. You, S. & Moon, K.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Physical Activity abou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3, pp. 505-515, 2013.
- [4] Nho, C. & Kim, S.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related Stress, Perceived School Gra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39, pp. 39-68. 2012.
- [5] Kim, D. Kim, Y. Kim, S. Jang, Y. Jang, M. & Park, J.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Experience and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7, No. 4, pp. 937-944, 2012.
- [6] Shim, J. Seung, J. Lee, M. Song, S. "A Study on Adolescents' Misconceptions about Oral

Health Knowledge in Some Areas”,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81-190, 2013.

- [7] Kim, S. “A Study on Leisure Activity Type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 pp. 165-172, 2013.
- [8] Sim, Y. Park, M. “An Analytic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Stress, Internal Resourc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36, No. 2, pp. 1-22, 2010.
- [9] Lee, E. Choi, T. & Seo, M.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chool,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2, pp. 69-84, 2000.
- [10] Kweon, G. & Lee, H. “A Study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Their Use Internet”,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13, pp. 59-86, 2002.
- [11] Byeon, Y. & Lee, H.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8, pp. 460-468, 2007.

저자 소개



박지현(Ji-Hyun Park)

2011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졸업 사회복지학 전공(박사)
2013년 현재 한신대학교 초빙강의교원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김광선(Kwang-Sun Ki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김광희(Kwang-Hoi Ki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남길우(Gil-Woo Nam)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신문팀장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민경원(Kyeong-Won Min)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삼순(Sam-Soon Lee)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2013년 현재 경기도의회의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정찬희(Chan-Hee Jeong)

1995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 문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현숙(Hyun-Sook Lee)

2011년 University of Edinburgh 졸업
사회정책학 전공(박사)

2013년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
학 초빙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홍직(Hong-Jik Lee)

2003년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D. in
Social Work)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보복지, 사회복지 디지털 컨텐츠